

###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를위한건의안

의안번호	제 89 호
------	--------

발의년월일 : 1998. 12. 16

발 의 자 : 김대식 의원의 19인

#### □ 주 문

- 지역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국가경제정책의 수립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부동산 등 투자 자원의 가치판정작업을 수행하는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의 폐쇄는 수도권 중심지역의 감정평가활동을 약화시킴으로써 건진한 지역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바 지역사정에 정통한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존치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각종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지역발전에 부응하는 신속 공정한 감정평가와 지역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공 감정평가기관의 위상이 강화되어야 함에도 지역단위 기관 폐쇄는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임.
- 지점폐쇄로 인한 지역 부동산정보 서비스의 약화는 향후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 및 이용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 지역주민 및 상공인들이 부천이 아닌 인천·서울·수원을 상대로 평가서비스를 받을 경우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 우리 의회에서는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존치하여 주도록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부천권 주민들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하고자 함

#### □ 제안이유

-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투자기관의 통·폐합 추진으로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이 폐쇄될 경우 경기지역에는 수원지점만 남게 되므로
- 그 동안 부천권(부천, 시흥) 지역에서 신속하게 처리되던 공적평가(보상, 처분, 경매 등) 및 기업대출 등을 위한 감정평가업무가 지체되거나 마비될 경우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지점을 존치하여 주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본 안을 제출함

첨부 : 한국감정원부천지점의존치를위한건의문안 1부 끝.

### 한국감정원부천지점존치를위한건의문안

정보화 시대 및 지방화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는 21세기 수도권의 중추도시인 부천은 경인권의 중심적 산업도시로 미래정보, 통신, 첨단산업의 기반이 조성된 신문명의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에서는 부천권역 시민 및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상공인을 위하여 신속 공

정한 감정평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용지보상평가, 금융기관의 담보평가, 경매 및 자산평가 등 각종 재산의 평가와 부동산 컨설팅, 지역부동산 정보제공 등 우리 지역 경제발전에 적극적으로 헌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대란으로 일컬어지는 IMF경제체제하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폐쇄하고 광역시인 인천이나 도청소재지인 수원에만 지점을 존치토록 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소재지에 기관편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지역의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부재로 인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케 됨이 자명합니다.

지역사회 사정에 해박하고 실물에 정통한 감정평가기관의 권위자이며 유일한 공기업인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존치시켜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80만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해 줄 수 있는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이 인구증가 및 생산 시설 중심의 제조업과 공장의 신·증축 등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부천권역의 감정평가시장을 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을 존치하여 주실 것을 80만 시민의 여망을 한데 모아 간절히 건의합니다.

1998. 12.

부 천 시 의 회 의 원 일 동